

(주)카길애그리퓨리나

▶ 서울대와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는 지난 4월 7일 서울대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첨단 생명과학 기술단지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기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산학협력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력의 일환으로 카길은 28억 기금을 서울대에 출연하여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내에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가칭)를 설립하여 기여할 것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는 카길 동물 영양 사업부와 서울대의 실험 공간과 회의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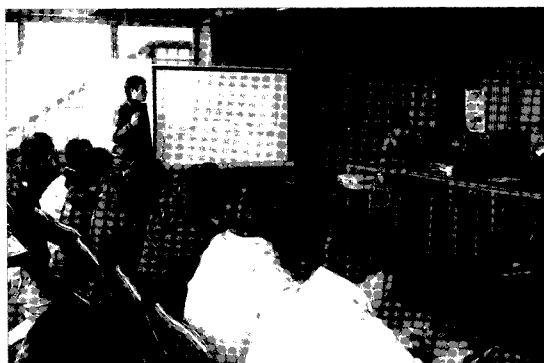
이 연구소는 카길 아태지역 고객과 임직원 주요 교육 센터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김태규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 소장은 "서울대가 그린바이오 단지에 동물영양회사로 유일하게 카길을 유치한 것은 카길과 성공적인 산학협력 역사의 증거"라며 "이번 연구소는 카길과 서울대와의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나아가 한

국 축산 현장에 맞게 카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트루라이프

▶ 컨설팅 사업본부 외부 워크숍 개최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는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시 강화군 소재 고벵이 펜션에서 '컨설팅 사업본부 외부 워크숍'을 실시했다.

컨설턴트(Farm Consultant)의 활동능력을 배가하고 농장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및 상호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워크숍은 컨퍼런스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단합 및 화합을 다지는 조별 경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명확한 타깃농장 컨설팅 추진계획 제시 및 우수한 컨설팅 실적을 거둔 FC 2명의 컨퍼런스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컨퍼런스(Conference)는 컨설턴트 개개인이 고객 농가 활동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고 토론 및 코칭하는 회의체로 매주 월요일마다 16명의 컨설턴트가 전원 참석한다. 컨설팅 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비슷한 케이스에 참고·적

용하는 등 생생한 현장중심 지식의 보고이자 트루 라이프만의 노하우가 결집된 지식시스템인 것.

컨설팅본부 황신호 이사는 “그동안 고객 농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힘쓴 FC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고객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고 생산성 달성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루라이프 농장 컨설턴트는 단순한 사료판매가 아닌, 농장을 직접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컨설팅하여 고객 농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16명의 컨설턴트가 책임 보증하는 (주)트루라이프 농장경영컨설팅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농장 컨설팅 문의
- 전화 : (032) 527-6913~4
- 홈페이지 : www.etrulife.co.kr



특히 구제역 피해로 인하여 다시 입식을 해야 하는 농가의 경우는 이동제한 해제 후 청소상태와 분뇨처리, 소독상태를 확인 받은 후에 입식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축 재 입식 신청시 방역상태 검사가 큰 관건이다. 깨끗해 보이는 축사에도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이 있기 마련이어서 철저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천하제일사료가 자랑하는 중앙연구소는 입식 준비농가의 방역상태를 점검하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축사의 청정도 검사(주요 질병 병원체 존재유무 확인)와 매몰지역의 수질검사는 물론이고, 사료 급이라인 안전성 검사 및 입식검사(입식가축의 주요 질병과 건강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천하제일의 기술연구소는 국내 최고 검사속도를 자랑하며, 샘플 도착 후 2~4일 안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또한 천하제일사료는 입식 시 농가점검 서비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고객의 농장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까지도 힘쓰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윤하운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요건 중에서 사회적 공헌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내 축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천

천하제일사료

▶▶ 역량강화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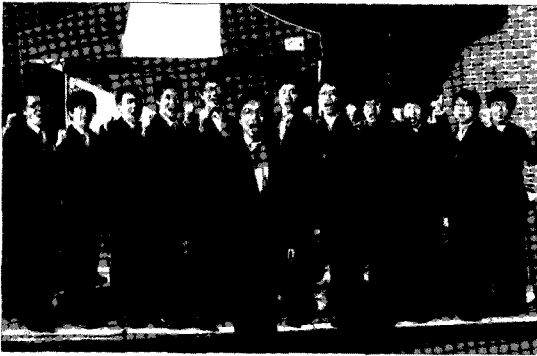
천하제일사료(대표이사 윤하운)는 지난 4월 7일과 8일 양일간 대전소재 중앙연구소에서 80여명의 지역부장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구제역과 시로 인하여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이번 교육의 주된 주제는 구제역으로 무너진 우리의 축산기반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상으로 복구시키느냐에 초점을 모았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본부터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제일이 사회에 대하여 공헌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CJ Feed

▶▶ 신입사원 1차 교육 성료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부부장 이병하)은 지난해 하반기에 12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해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서류전형, CJ 인적성 테스트, 역량면접, 임원면접 등 300: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대한민국 축산업계의 미래라 할 수 있다. 이들 신입사원들은 영업, 생산, R&D, 스태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들이 바라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산전문성

관련 역량개발 교육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CJ사료사업부문은 교육부문에 창업이념에도 포함된 인재제일 정신에 따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고 수준의 사내전문 강사와 함께 업계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기관과 실무를 연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론교육 이후 현장실습으로 이어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

문기수 교육담당부장은 “비전공자에게 축산은 무척 낯선 학문이지만 신입사원들이 열정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파트 책임자인 장재운 팀장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인재들 덕분에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전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CJ사료사업부문은 교육기간 동안 매주 자체 평가를 실시해 신입사원의 집중력과 학습 열의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성적우수자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성적이 저조한 자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모두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총 교육과정 중의 이번 1차 교육을 마무리 하면서 한마디씩 들어본 신입사원들의 소감에서 국내 축산업계와 CJ사료사업부문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입사원 이희철씨는 “CJ Feed의 국제화에 맞추어 축종 전문성의 확보는 물론,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